



추위 녹이는 사랑의 연탄

광주시 남구와 SK텔레콤 서부지역본부는 17일 맹추위 속에 잔뜩 움츠러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황일봉 청장 등 남구청·SK텔레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남구 월산동에서 저소득층 100가구에 연탄 1만5천장과 난방유 1천500ℓ를 배달하고 있다. /니영주기자 mjna@

‘기업 특혜 블랙홀’ 세종시 지방 대기업을 쓸어 가나

무안기업도시 등 직격탄... 균형발전 파탄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은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는 국내의 기업들의 발걸음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물리게 만들면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17일 정·관계에서는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이제 겨우 싹을 틔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장,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근간으로 하는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는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무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의 기업들의 발걸음이 파격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기업도시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조성 정책이 사실상 파탄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세종시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파격적 혜택을 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국내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적극 권유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 동지를 둔 기업들의 이전은 물론 추가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재계 일각에서는 광주에 있는 삼성 클러스터의 세종시 이전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 주요 공장을 두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추가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경제계 인사는 “수도권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다 세종시의 기업도

시화가 진행된다면 광주와 전남에 투자할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수도권과 거리가 먼 광주와 전남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는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각 광역경제권의 지역거점 사업으로 삼은 것은 물론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0조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도 내놨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세종시 차출설’도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를 추진할 경우,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종환 국토 “한전 나주 이전 정부방침 확고”

청와대·정부·한전 사장 “세종시 이전설 사실무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전력의 ‘세종시 차출설’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이전 기관인 한전과 정치권 등에서는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한전의 세종시 이전 검토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한전의 세종

시 이전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 장관과 통화한 결과, 정 장관이 ‘한전을 당초 계획대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한국전력의 ‘세종시 차출설’은 사실이 아니며 고려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한전의 세종시 차출설은 처음 들어본 말이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도 “당 내외에 확인한 결과, ‘한전의 세종시 차출설’은 근거 없는 설에 불과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혁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한전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는 한전의 세종시 차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혁신도시가 오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의 지자체,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월요일엔 **즐거운 한자**

금요일엔 **즐거운 영어**

광주일보 무료 만화 학습지 추가 발행

올 컬러 영웅전으로 익히는 생생한 영어

광주일보는 월요 만화 학습지 ‘즐거운 漢字’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찬사와 호응에 힘입어 추가로 만화 영어 학습지 ‘즐거운 영어’를 발행, 무료로 배포합니다.

오는 12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갈 ‘즐거운 영어’는 올 컬러 16페이지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되며 영웅들의

전기를 수준높은 만화로 구성, 누구나 쉽게 상황별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핵심문장과 주요 단어, 생활영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초·중·고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영어학습지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오바마 오늘 방한 온실가스 4% 감축 내일 한미정상회담 정부 2020년까지

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해 미 장병을 격려하고 이한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3·8면〉
이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과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설정했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유용 다목적 첨가제

소액 자본금 투자로 확실한 고소득 창출

광주·전남·시·군 판매점 선착순 모집

광주·전남·시·군 판매점 선착순 모집

대한연료(주)

광주시 북구 남동로 1411-1 (보문역 인근)
· 광주·전남 총 대리점 ☎ 523-1006
FAX: 062) 515-5557
HP: 010-4010-3021